

신경숙 단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와 글쓰기

김 미 영*

차례

1. '태생지'에 내포된 생태적 사유
2. 자연 에코페미니즘의 전유와 소통의 세계
 - 1) 돌봄, 모성성의 확대
 - 2) 생명의 존중
 - 3) 영성의 강조
3. 문평의 침투와 단절의 세계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신경숙 단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의 양상과 자연 에코페미니즘과의 접점을 살펴본 것이다. 그의 생태적 사유는 '태생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胎生地는 단독성을 띠는 장소로서 대체가능한 장소가 없는 고정불변의 장소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서술자 또는 작자에게 육친, 땅과의 관계를 더욱 밀착되고 영속적으로 만들며, 때로는 신화적으로 상승시킨다. 또한 이 말 속에는 '도회지'에 대한 강력한 차별성이 스며있다.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태생지는 '정읍'이라는 구체화된 지명이나 J읍, J시로 표현된다. 태생지가 농촌, 흙, 토지라는 장소에 표현된 것은 한 국인의 정서와 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태생지에 대한 그리움, 애정은 신경숙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 한양대

사유의 근원지라 할 수 있으며, 생태적 사유의 양상은 모성성의 확대, 생명의 존엄, 영성의 강조 등으로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소설의 형상화는 궁극적으로 소통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 태생지의 변화로 고향의 원형성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생명의 고향을 보여주며, 고향의 이미지와 먼 도시 문명의 경우는 관계의 단절성을 드러낸다.

신경숙은 특히 여성문학의 고유한 분야인 '어머니 되기'에 집중하여 '생산', '돌봄'의 행위를 드러낸다. 기존의 모성성이 자신이 낳은 자식을 '돌봄'으로써 혈연, 기문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면, 신경숙의 생태의식이 반영된 작품은 가부장제에 억압된 여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돌봄의 태도와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어머니 되기'와 돌봄은 육친과의 관계에서 더 확장된 것이다. 임양자와 어머니, 부부간, 제부와 처형 등의 관계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생명체까지도 해당된다. 그의 작품이 '어머니 되기'와 '생명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내용일 때 '동물(조류)의 새끼 낳기' 서사가 병행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또한, 자연 에코페미니즘의 일반적 모습인 생명 존중과 영성에 대한 강조가 신경숙의 단편소설에서 주목할 수 있는 글쓰기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 핵심어 : 신경숙, 생태적 사유, 생태의식, 태생지, 소통, 어머니 되기, 생명존중, 영성, 친밀성, 비정성, 단절

1. '태생지'에 내포된 생태적 사유

1985년 「겨울 우화」로 등단한 신경숙은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면서 대중의 사랑과 비평가들의 관심을 끌고루 받아 왔다. 그의 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어 학위논문도 30여 편에 이르며, 평론도 50 여편에 이른다.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 중에서 김화영 교수의 「태생지에서 빈 집으로 가는 흰 새」¹⁾는 신경숙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설미학의 검토를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의 글에는 신경숙의 유년 체험 속에 나타

난 어린이이와의 분리, 태생지에 대한 향수, 오래전 집 떠나기를 ‘빈집’의 형상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복의 「신경숙 소설의 미학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²⁾는 신경숙 소설이 지닌 대중성을 분석한 것으로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 글은 신경숙이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꾸준히 존중받던 진폭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를 ‘감성을 내세워 대중과의 연대를 모색’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작품에 편중되었을 때, 이 두 편의 글은 신경숙 소설의 전반적인 작품들에 대해 실질한 논의를 짚어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앞에서 언급한 두 편의 글이 신경숙의 세 번째 소설집까지 다루고 있다면,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최근에 발표된 단편소설집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6편의 소설집에 수록된 58 편의 작품³⁾과 7편의 장편소설⁴⁾을 일별하면 주요한 키워드의 하나로 ‘생태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생태의식의 유/무를 판별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보다 생태의식의 형상화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에 생태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의 열거는 생략한다. 대신, 생태학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작품의 수가 변화였음은 미리 밝혀둔다. 첫째 소설집인 『겨울 우화』(개제: 『강물이 될 때까지』)와 두 번째 소설집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는 한 편 정도에 불과했으나 세 번째 소설집부터 여섯 번째에 이르러까지는 각 소설집마다 세 편 정도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단편집 출간 사이에 발표한 장편소설에서도 양상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생태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⁵⁾

1) 김화영, 「태생지에서 빈 집으로 가는 흰 새」, 『문학동네』 1998년 봄호.
 2) 이재복, 「신경숙 소설의 미학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21집, 2002.
 3) 소설집은 다음과 같다. 『겨울우화』(1990)(개제: 『강물이 될 때까지』(1998)), 『풍금이 있던 자리』(1993), 『오래된 집을 떠날 때』(1996)(개제: 『감자먹는 사람들』(2005)), 『땀기발』(2000), 『중소리』(2003), 『모르는 여인들』(2011) 등이다.
 4) 장편소설은 다음과 같다. 『깊은 슬픔』(1994), 『외딴방』(1995), 『기차는 7시에 떠나네』(1999), 『마이올렛』(2001), 『리진』(2007), 『엄마를 부탁해』(2008),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2010) 등이다.

이는 작가 연륜이 깊어질수록 생태적 사유도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생태적 사유는 그의 다양한 소설 형상화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파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사유’ 또는 ‘생태학적 상상력’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아직껏 발견하지 못했다.⁶⁾

신경숙의 생태적 사유는 넓게 보면 에코페미니즘의 자장 속에 수렴된다.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요 균형”⁷⁾이다. 이는 자연과 여성이 동질적인 차원에서 억압받는 대상이기에 이를 극복하고 ‘공존’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에코페미니즘과 신경숙의 소설은 다른 점을 노정한다. 그의 글쓰기에는 여성 억압이라는가, 가부장제의 억압이 미약하게 드러나거나 아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에코페미니즘은 ‘근대화라는 형태의 개발은 여성적 원리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아개발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비폭력적이고 성별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인간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성적 원리의 회복’을 주장하기에 주목받는다. 여기서 여성적 원리라 함은 ‘생산’, ‘돌봄’, ‘부드러움’ 등이라 할 수 있다.⁸⁾ 생명이 갖든 모든 것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때로는 돌보는 것이다.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도 이러한 여성적 원리의 회복⁹⁾을 지향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한 갈래를 지닌다.¹⁰⁾

5) 연구 초반에는 장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도 함께 다루었으나, 연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편과 장편을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장편소설의 생태적 사유는 별도로 연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6) 제목 또는 논문의 방향이 생태의식인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내용에서 일부를 드러내는 것으로는 이주미의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자기파멸의 심리적 메커니즘-바이올렛을 중심으로-」(『한민족문화연구』, 2009.)가 있다.
 7) 김옥동,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410면.
 8)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터슈·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작파비평사, 2000.
 9) 장정렬, 『생태주의의 시학』, 한국문화사, 2000, 13면.

논자들에게 따라 자연 에코페미니즘(또 다른 이름으로는 문화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갈래는 세분화되지만 가장 공통적인 성향을 든다면 여성적 원리로서의 돌봄, 생명존중, 영성을 들 수 있다. 신경숙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는 자연 에코페미니즘의 이러한 성향을 그대로 보여 주거나 또는 변형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신경숙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가 자연 에코페미니즘과 친연성을 띠면서도 그만의 독특한 함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먼저,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는 ‘태생지’와 밀착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고향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한 문장에서 집 요할 정도로 ‘태생지’를 선호한다.¹⁾ 고향보다 ‘태생지’라는 단어에 애착을 갖는 신경숙 소설의 생태적 사유 또는 생태적 상상력은 ‘땅’의 의미와 분리될 수 없다. 흙, 대지, 땅의 본성은 모성성, 생명에 대한 존엄성, 영성, 육친적 친밀성이라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소통의 세계’를 지향한다. 이때 ‘태생지’는 생태학적 상상력의 핵심 공간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글은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를 분석하는 것이 그의 소설해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의 글쓰기에 나타난 생태의식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2. 자연 에코페미니즘의 전유와 소통 세계 지향

1) 돌봄, 모성성의 확대

10) 이소영 외 편역, 『자연, 여성, 환경-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2000.

11) 이 단어는 신경숙 소설의 생태의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생지는 「감자먹는 사람들」에 5번 나온 이후, 산문집 『아름다운 그늘』을 비롯하여 96년도 이후 작품부터 최근작인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서도 고집스럽게 사용된 ‘신경숙표’ 언어라 할 수 있다.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에서 주요한 양상은 돌봄, 또는 ‘어머니 되기’이다. 이는 등단작인 「겨울 우회」에서부터 내장되어 있다. 이 작품에는 세 번의 유산 끝에 임신을 한 ‘잉부’ 얘기가 나온다. 주인공 서술자는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잉부’에 대한 예찬을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애인의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면의 잉부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첫 작품이 작가의 문학적 근원지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어머니 되기’와 동물의 새끼 낳기가 병행되는 서사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후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인간과 동물의 병행적 서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머니 되기’를 보여주는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종소리」이다. 이 작품은 물리적인 ‘어머니 되기’를 초월한 ‘어머니 되기’의 전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이 말은 ‘어머니 되기’가 모자 간의 혈연적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성의 확대를 보여준다는 뜻이다. 달리 표현하면 ‘돌봄’의 태도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즉 모성성, 돌봄의 대상은 모자 관계를 초월하여 입양아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동생들과 오빠, 자식들과 아버지 등 다양한 대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신경숙 작품에 나타난 모성성은 가부장제에 억압되어 있는 어머니의 신성화된 모성성과는 일정 부분 차이를 두게 된다.

「종소리」는 몸과 마음에 병이 든 남편을 아내가 ‘돌봄’으로써 ‘어머니 되기’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아내의 심리 변화는 ‘새의 알 낳기’와 병행하면서 진행된다. 남편은 성실하고도, 능력 있는 회사원이다. 그는 부도난 건설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스카웃 되었으면서도 옛 동료와 회사를 잊지 못하고 하루에 두 번씩 옛 회사를 방문한다. 그는 결국 옛 회사와 옮긴 회사가 생사를 건 수주 경쟁을 벌이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희귀병인 ‘크론키드카나다’로 임원을 하게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직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내인 ‘나’도 세 번째 유산을 남편에게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삶을 소진하는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더 이상 “내 안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폐허인 모양”(18면)이라고 자조하면서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힘들어 하였

다.

남편은 이직하는 첫날 화장실 창틀에다 짐을 짓는 새를 발견하고 새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 그는 학창시절 야생조류를 탐사하러 다니는 탐조회 회원이라는 사실과 새가 지닌 ‘성스러움’ 때문에 새를 좋아다녔다고 밝힌다. 어린 나이부터 장자의 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나이보다 곱씹게 살아온 남편의 무의식적 욕망은 ‘자유’였을 것이고, 그러한 자유를 본질처럼 지니고 있는 새가 성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새의 집만들기와 새끼를 낳는 과정은 남편의 회생과 부부관계의 회복에 중요한 계기로 작동한다. 이 작품에는 아내의 새 이야기와 남편의 새 이야기가 교차되어 진행되면서 아내의 심리변화를 그리고 있다. 아내가 들려준 진정한 아버지의 새 사냥과 남편이 들려준 선택의 새사냥¹²⁾은 서로 연결된다.

아내인 ‘나’는 아버지와 함께 새 사냥을 간 적이 있다. 아버지는 때때로 거울 들녘을 걸으며, ‘나’가 잡아보라는 새들을 잡새라는 이유로, 무덤가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일부러 새를 잡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은 한때 새를 잡았던 체험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봄에……새가 품이 열매나 작으나. 총에 맞고 떨어진 걸 주워보니 아직 거드랑이가 따뜻한 것이……마음이 덜커 내려앉더라. 내가 잘못 했구나, 싶었다. 내 자식들이 집을 나가 먼 디서 살고 있느니 내가 총을 쏘았구나, 싶은 것이.”¹³⁾

12) 남편이 들려준 선택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어느 마을에 마을사람들과 함께 사냥을 가지 않았던 한 사람은 정성들여서 매일 총을 닦고 조이고 기쁨을 칠하였다. 마을사람들이 사냥도 가지 않으면서 뭐하러 매일 그렇게 총을 정비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때가 되면 꼭 잡아야 할 짐승이 있다고 하였다. 드디어 그가 사냥을 떠났다. 그가 사력을 다해 쏜 것은 바로 ‘적막’이었다. 남편의 이야기는 ‘나’의 아버지가 때면 새 사냥을 나가는 이유와 연결된다.

13) 신경숙, 「종소리」, 『종소리』, 문학동네, 2003, 39면. 이후의 인용문은 제목과 페이지수만 기재함.

아버지는 자신의 품을 떠나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더 이상 새 사냥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새에 관련된 아내의 추억은 하나 더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동지에서 새 알을 가져온 오빠에게 원래의 새 동지에 둘러놓으라고 애원한 적이 있다. 그 대신 오빠의 ‘더러운 큰 운동화를 닦는 고역’을 마다하지 않았다. ‘새’를 매개로 하여 대화를 시작하는 이 부부에게 소통의 가능성이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바슐라르는 “가장 습관적인 삶 가운데서도, 숲과 들판 가운데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세집의 발견은 언제나 새로운 감동”¹⁴⁾을 준다고 하였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새 동지를 보고 느꼈던 감동이나 아내가 어린 시절 오빠가 훔쳐온 새 알을 보고 느꼈던 감정은 바슐라르의 지적처럼 새 생명에 대한 경이감에서 온 감동의 정서이다.

새는 ‘다람쥐의 손도, 해리(海狸)의 이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새 집을 만든다. 그것은 바로 “새의 도구는 새의 몸 그 자체”¹⁵⁾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새 집을 짓기 위해 어미새가 들이는 육체적 노동은 ‘어머니 피기’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의 생태현상은 그대로 남편과 아내에게 투사되어 ‘거식증’ 때문에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남편과 ‘혜허’ 같은 자신의 몸을 두려워하는 아내의 삶을 변화시킨다.

남편의 주치의의는 ‘나’에게 당분간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되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한다. 그는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필요할 때가 있으며 한 번도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남편은 더구나 어머니가 절실하다고 알려준다. 남편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회생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 작품의 첫 시작인, “당신은 돌아온 새 같다./이젠 어디에나 깃들일 수 있는 새 같다.”(9면)라는 내용이 이를 암시한다. 이런 희망은 ‘나’가 ‘어머니’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세 번째 유산을 했기 때문에 빈 집이다. 그 빈 집은 남편을 돌보는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돌봄의 마음과 생명체간의 상호협력과 그를 통한 상처의 치유는 생태윤리적 모성성(mothering)으로서 에코페미니즘이

14) 바슐라르,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230면.

15) 바슐라르, 위의 책, 237면.

강조하는 바이다.

「그는 언제 오는가」도 ‘어머니 되기’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 서술자가 아내를 잃은 제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되기’를 발전할 수 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녀’의 유일한 혈육은 연극배우 동생 서미리이다. 이 자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교통사고 참사를 당하면서 ‘세계의 틈’을 자각한다. 풍요로웠던 고향에서 도시의 아파트 생활은 생생한 것들의 시작이었다. 결혼한 동생 부부와 함께 생활했던 그녀에게 다가온 동생의 돌연한 자살은 그녀의 삶 전체를 블랙홀을 미주한 것처럼 불온하게 하였다. 결혼 의문이었던 동생의 자살 이유를 제부가 제안한 남대천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다. 동생이 남긴 노트에는 동생이 임신과 유산을 통해 체험한 환희와 비통함, 그녀의 폐암 진단, 남대천의 연어 회귀 장면에서 생명의 연속성을 보고 싶은 소망들이 담겨 있었다.

주인공에게 부모의 교통사고가 세계와 단절시킨 계기였다면, 동생의 자살은 세계와의 단절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 그런데 제부 또한 ‘그녀’처럼 단절의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부는 상처(喪妻) 이후, 어렵게 만난 새로운 사랑 앞에서 이 단절의 세계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주인공 서술자는 제부의 깊은 슬픔을 이해한다. 그리고 제부를 그냥 두면 자신처럼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외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제부를 다독인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제부를 어머니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생태학적 상상력에 기반한다.

여기서 생태학적 상상력이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본 이유는 남대천으로 가는 도중에 말았던 ‘자연의 뱀재’ 때문이다. 소변을 보기 위해 엉덩이를 내렸던 주인공은 서늘한 새벽 들판에서 풍겨 온 ‘햇곡식의 짙은 냄새’를 맡으며 우주와 교감하는 느낌을 갖는다.

나는 친친히 하늘을 향해 높다랗게 쌓아져 있는 남가리 뒤로 가서 스킨트를 걷어올렸다. 동생 생각도 노트 생각도 그만하고 싶다. 까내린 엉

덩이 위로 찬바람이 쿨렁지나간다. 그렇게 굽하더니 남가리에서 풍겨오는 햇곡식의 짙은 냄새를 코가 감지해내는 순간 오후가 짙 사라져버린다. 그래도 나는 잠시 그러고 앉아 있었다. 햇곡식의 짙은 냄새. 하늘은 어찌 이런 냄새를 만들어 냈을까. 이런 냄새를 맡고 있으면 아직 단 한 번도 발음해 보지 못한 말을 하고 싶어진다. 사랑한다고. (그는 언제 오는가, 250면)

스스로 단단한 벽을 만들어 타자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살아온 서술자에게 ‘햇곡식의 짙은 냄새’는 ‘사랑’을 일깨우며 그녀가 간헐 단단한 벽을 허물게 하는 힘이 되었다. 햇 곡식의 냄새를 안다는 것은 자연의 생성을 향기로 맡을 줄 아는 인간의 파스한 심성을 지녔다는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태생지를 ‘농촌’으로 두었을 때 가능하다. 서술자가 맡은 ‘홀대 밑에 쌓이던 황금빛 알갱이들이 뿔어내던 냄새들’(251면)은 고향의 부모님이 추수하던 광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들판에서 거두어들이던 곡식 알갱이들은 대지의 생산성이며 이는 여성의 생산성과 동체에 있다. 주인공은 생명체를 지닌 존재의 순환성을 경이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다.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는 제부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이어진다.

서술자인 주인공은 자신처럼 외로운 인간으로 굳어질지도 모르는 제부를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다독인다. 이는 ‘돌봄’의 마음, ‘어머니 되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모든 상처받은 존재들에 대한 ‘꺼안기’와 ‘그리움’은, 부박한 세계에서 우리들이 망각하고 있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복원¹⁶⁾에서 중요한 동인이 된다.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동일한 모습이다. 이 말은 부정애를 보여주는 아버지 모습이나 모성애를 보여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신경숙 작품에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형상으로 전개된다는 뜻이다.

16) 고명철, 「문학적 지식의 빈곤, 아우라에 도취된 소설의 현주소」, 『쓰다의 정치학』, 세움, 2001, 267면.

신경숙이 그려내는 가족은 거부장적인 삶이 온화한 형태로 왜곡된 없이 지배하는 그런 의미 체계를 가진다.¹⁷⁾ 그녀의 소설은 거부장적인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그것은 타자, 특히 여성들(어머니, 부인, 딸)에 대한 역할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다. 아버지 자신도 ‘가문’이라는 더 큰 규율 속에서 살기 위해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망을 스스로 억압한 인물이다. 父나 母는 둘 다 ‘문자의 세계’에서 제외된 인물이면서 그렇기에 자식들을 ‘문자의 세계’로 보내기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다.

신경숙의 단편 중에서 ‘태생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 작품은 「감자 먹는 사람들」이다. 이 작품은 농부인 아버지의 서사라 할 수 있다. 가수인 ‘나’는 지병으로 임원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느낀 생각들을 선배언니에게 편지를 통해 들려준다. 아버지의 과거사와 지병, 유년 시절에 헤어진 유순이와의 조우, 병원에서 만난 젊은 여성의 이야기 등이 주요한 사연이다. 편지 수신자와 사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음’과 대면한 사람들이란 점이다. 선배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치러낸 여성이고, 자신은 이제 육친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딸이며, 씩씩하게 살고 있는 유순이도 소아당뇨에 걸린 어린 자식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며, 또 다른 여성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의 ‘지루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물론 이야기의 초점은 지병 때문에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살아온 나날들과 그 나날의 일부에 있는 서술자의 유년담에 있다. 그런 이야기의 주요 공간이 바로 ‘태생지’가 된다.

고향은 친숙함과 편안함, 양육과 안전의 보장, 소리와 냄새에 대한 기억과,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공동의 활동과 편안한 즐거움에 대한 기억을 환기¹⁸⁾하는 장소이다. 바슐라르와 마찬가지로 이후 투안도 거주 및 가정이 사람들의 장소 소속감을 발전시키는 핵심요소라고 보았다. 가정이란 공간은 기억과 상상력이 서로 연관되면서 서로를 강화한다. 기억과 상상력은 함께 하나의 기억과 이미지를 지닌 공동체를 구축한다.¹⁹⁾

17) 이재복, 앞의 논문, 172면.

18)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255면.

고향, 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발산되는 육친적 친밀성은 아버지가 조상의 묘를 손질하는 데서 절정에 이른다. 조실부모한 아버지는 조부의 산소에 상석을 세우기 위해 매년 거두어들이는 추수로 잇대 이른부터 차례로 비석을 세웠다. 혈육에 대한 유대감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평생 농토에서 지낸 아버지는 병원에서조차 그의 삶과 가장 유사한 터전인 ‘고구마밭’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우린 고구마나 감자를 비가 온 뒤에 썼지요. 찬비가 그친 두 달에 가서 감자나 고구마 손을 잡아당기면 뿌리에 감자나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나왔지요. 감자뿌리에 쑥쑥 달려나오는 감자 캐는 일은 얼마나 풍요롭고 재미있던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맨발이 되어 감자밭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고구마나 감자는 푸지고 푸져서 한 고랑만 캐도 수북이 쌓였습니다.(중략) 아버지 고구마 캐는 아주머니 곁에서 한참을 서성서성거렸습니다. 바람이 차다고 그만 들어가자고 해도 고구마밭 주위를 빙빙 도셨습니다.²⁰⁾

서술자는 감자를 캐는 일을 통해 육친과의 행복했던 때를 떠올린다. 그 속에는 자연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삶이 있다. 그녀의 소설이 보여주는 훼손되지 않은 가족 공동체에 대한 향수는 보수적이고 복고적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지만 이 훼손되지 않은 가족 공동체에 대한 향수는 근대 이후 아버지의 부재와 거부장적인 압제로 인해 제대로 된 가족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늘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 온 우리 시대의 모든 이들이 꿈꾸는 그런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훼손되지 않은 가족 공동체에 대한 향수는 현대 문명에 의해 소외되고 억압받는 현대인들에게 심리적인 안식처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²¹⁾

육친과 지냈던 친밀한 장소로서의 땅은 「그가 모르는 장소」에서도 논여겨 볼만 하다.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작품과는 상당히 다르다. 진

19) 가스통 바슐라르, 락광수 옮김, 『空間의 詩學』, 민음사, 1990.
20) 신경숙, 「감자 먹는 사람들」, 『감자 먹는 사람들』, 창비, 59-60면.
21) 이재복, 앞의 논문 175면.

짜 태생지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생지처럼 느끼게 된 중요한 장소가 등장한다. 또한, 작중인물인 어머니와 모자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아버지를 여윈 이후, 모자는 즐겨 낚시를 하였다. 낚시 장소인 호수는 이 모자에게 ‘태생지’처럼 아늑한 장소로 느껴진다.

태고적 신비감을 지닌 이 호수에서 이들의 불행한 결혼생활과 어머니의 불행한 과거를 서로 얘기하며 소통을 이룬다. 어머니는 자신의 가계에 난쟁이를 출산하는 유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갖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는 양자인 그를 지극한 정성으로 키웠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도 그는 알 수 없는 ‘결핍’을 느끼며 자라왔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다. 어머니는 이들의 불행한 결혼소식 때문에 밤새 눈물을 흘리고, 이들은 그런 어머니를 업고 달랜다. 비록 혈육관계는 아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보듬고, 사랑하는 친밀성을 통해 삶의 고통을 견뎌 낼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한다.

이처럼 신경숙의 모성성, 돌봄이라는 생태적 사유는 태생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신경숙 소설에서 ‘자식 사랑’을 표현하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행위는 농촌에서 흙을 갈며 곡식을 키워내는 농부의 심성과 닮아 있다. 이러한 점이 흙을 배경으로 한 태생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때로 생태학적 공간은 호수와 같은 장소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예는 매우 부분적이다.

2) 생명의 존중

에코페미니즘은 자연 속의 생명이 협력과 상호 보살핌, 사랑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론 및 새로운 인류학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이분법을 넘어 모든 생명체에 내재한 생존 본능과 의지를 되살리고 기꾸어나가기를 희망한다.

사실, 신경숙 소설에서는 남녀의 이분법, 달리 표현하여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에코페미니즘의 경향을 그의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 나아가

생명의 평등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깊은 숨을 쉴 때마다」에서 극진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세 명의 여성을 주목해야 한다. 세 명은 모두 나이가 다르다. 주인공인 서술자는 소설가로서 30대, 첼로를 켜는 20대, 자전거를 배우는 10대의 여성 인물들이 상호관계를 맺으며 자매애를 형성하여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확산시킨다. 그리고 여기에 배농을 수 없는 것은 6 마리의 새끼를 낳은 개의 존재이다.

이렇게 세 명의 여성 인물 중에서 피로에 지쳐 있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두 여성을 회생시키는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10대 소녀이다. 소녀는 정기적으로 맑은 피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신장이 안 좋은 환자이다. 그러한 소녀가 삶에 지쳐있는 두 성인 여성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생명의 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을 적마다 말라깽이 소녀의 손이나 품속엔 땀기가 있다. 발에서 케서 사이디병에 옮겨심은 약초 뿌리, 맥주캔에 속에 물을 붓고 담가놓은 고구마순, 종이상자에 흙을 담고 묻어온 국화 뿌리, 소녀는 무슨 뿌리나 손을 보지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처녀에게 갖다주는 모양이다. 이제 처녀는 소녀가 제집 창에서 나 올라갈게요, 하면 그러라고 대답하고 있다. 말라깽이 소녀와 연약한 얼굴의 처녀는 급속도로 친해져서 가끔 호렙텔 지하식당에서 둘은 밥을 먹고 있기도 했다.²²⁾

소녀는 자신의 방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308호의 베란다를 쫓아 무로 예쁘게 가꾸고 싶은 꿈을 지녔었다. 드디어 그 308호에 투숙하는 손님이 생기자 자신의 꿈을 실천한다. 308호에 투숙한 첼리스트에게 열심히 새싹과 세순을 가져다 주면서 자신의 꿈을 키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쌍둥이 여동생의 죽음 때문에 삶의 의욕을 상실한 첼리스트를 변화시켰다. 그녀가 가져온 새싹 때문에 308호 베란다에는 당근썩이 푸르게 자라고, 노란 국화꽃이 피는 것처럼 첼리스트는 소녀와 ‘밥’을 먹

22) 신경숙, 「깊은 숨을 쉴 때마다」, 『감자먹는 사람들』, 창비, 2005, 328-329면.

을 수 있게 되었다. 첼리스트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수액을 받아들이는 행위와 동일하다.

글쓰기에 피로를 느꼈던 주인공은 다시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그녀가 체주도를 떠난다고 했을 때, 소녀는 선물을 준다. 소녀가 내민 작별선물은 문주란 씨앗이었다. 죽음을 안고 사는 소녀가 역설적으로 생명의 씨앗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것이다. 소녀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녀가 열심히 듣고 다닌 새싹들은 생명의 숭고함을 대기 속으로 퍼지게 하였다. 생사의 경계선에 있는 소녀, 운명처럼 다친 불행 앞에서 삶의 의미를 잃은 20대 여성, 절대적이고 독으로 외로운 30대 여성 등, 세 명의 여성 인물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명의 질서에 동참²³⁾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도 새끼를 낳는 동물의 등장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소녀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소녀의 집은 비어 있었다. 소녀의 행방을 에타게 찾던 첼리스트는 이때 새끼를 낳은 강아지를 발견하여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

앞 절에서 이미 살펴본 「그는 언제 오는가」에서도 생명의 존엄성은 강렬하게 드러난다. 동생 서미란이 지니고 있는 생태의식, 즉 생명 존중 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녀의 노트에 담긴 부모의 죽음, 언니와의 유전적 친밀성, 자신의 임신이 주었던 환희와 세 번의 유산, 폐암 선고, 연어의 모친회귀 장면 등에 대한 느낌은 그가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가이아 이론에 의하면 여성의 임신은 대지의 생산과 동일한 생태계 현상이다. 동생은 ‘어머니 되기’의 기회를 결국 얻지 못한 채, 이쁜 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각성하고 있었던 인물임이 노트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생명의 잉태’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동생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암탉이 잘 낳던 달걀을 낳지 않는다는 푸념

23) 박경숙, 「1990년대 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1집, 2007. 8, 152면.

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대청마루 밑에서 눈처럼 하얀 알이 놓여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세상에나. 대청 마루 밑 어둡고 깊숙한 곳에 수십 개의 계란이 흰 조약돌처럼 도란도란 놓여 있었다. 흰 눈처럼 소복하게. 갑자기 알을 낳지 않는다고 여겼던 닭이 아무도 모르게 그 대청 마루 밑에다 밑알을 품고 알을 낳고 있었던가 보았다.²⁴⁾

동생이 달걀을 발견하고 받았던 감동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엄, 신성함이다. 그때 어린 동생은 “나도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의 어디 아주 깊숙한 곳에 세하얀 알을 낳아야지”라는 결심을 하였다. 이미 닭이 품었던 세하얀 알에 대한 경외심과 연어의 회귀 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갈망은 그녀의 생태적 사유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인간관계의 소통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작품으로 「부석사」도 빼놓을 수 없다. ‘그’와 ‘그녀’는 1월 1일 부석사로 여행할 것을 약속한다. 두 사람 모두 1월 1일에 자신들을 방문하겠다는 불청객을 피하고 싶은 생각에 이런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와 ‘그녀’가 서로 알게 된 계기는 산책로에 있는 텃밭에서의 체소 서리가 된다. 두 사람은 같은 오피스텔에 살면서 체대로 통성명도 하지 않은 사이였으나 산책로에 있는 텃밭에서 서로 얼굴을 익힌다. 그녀는 오피스텔 주변 야산을 산책하기 좋아하는데 그 길에는 그녀의 관심을 받는 텃밭이 있다.

누군가 그 밭에 사시사철 열심히 채소를 기꾸었다. 파릇이 필 때면 파릇이 피었고 썩갠 것이 자랄 때는 썩갠 것이 자랐다. 여름날엔 시골 밭처럼 울타리로 여겨도 손채없게 옥수수대가 자라고 있었으며 고구마며 감자 줄기가 보일 때도 있었다. 그 밭 가장자리의 채소를 곁에서 꺾다가리 없 이 키가 큰 접시꽃이 잎새를 매달았다가 꽃을 피었다가 했다. 김장철을 앞둔 가을에는 반은 드러난 무 위로 새파란 무잎이 아침 햇살을 받고 활짝이고 있기도 했다.²⁵⁾

24) 신경숙, 「그는 언제 오는가」, 『떨기밭』, 문학과학지성사, 2000, 248면.

그녀가 관심을 두는 텃밭의 의미는 생명체들이 자라고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남들에게는 무심한 대상인 ‘텃밭’의 의미를 알아보는 존재들이다.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채소의 푸른 빛을 보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본 것이다. 이들이 야채 서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텃밭의 생명성을 서로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신경숙 소설에서 ‘알아본다’는 행위는 인간소통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다. ‘알아본다’는 행위가 사람에게 대한 것이든, 사물에 대한 것이든 이것은 존재의 증명이기에 의미가 있다.

이 작품에서 생명의 존중은 ‘개’와 ‘수리부엉이’에도 드러난다. 개와 수리부엉이는 모두 ‘다친’ 동물들이다. 병든 개와 다친 수리부엉이가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은 남녀 주인공의 생명존중 태도와 관련이 있다. 주인공들이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생명 존중의 태도는 결국, 고립된 생활을 하는 ‘그녀’와 ‘그’를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부석사」의 두 주인공은 애인이나 동료에게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한 체험 때문에 세계와 단절된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인물들이 서로 소통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지녔기에 가능하다. 생명의 존중, 나아가 모든 유기체에 대한 평등은 신경숙 단편 소설에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존중을 보여주는 생태적 사유도 태생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작품들에는 태생지라는 단어가 드러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은 흙을 토대로 한 대지에서서의 생명력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여성의 강조

에코페미니즘 중에서도 자연(또는 문화) 에코페미니즘의 특성을 가장

25) 신경숙, 「부석사」, 『종소리』, 문학동네, 2003, 235면.

잘 보여주는 것은 여성이다. 생태학적 생명의 신성함과 여성 개념은 그리 멀지 않다. 이때의 여성은 ‘종교’ 보다는 ‘주술’에 가깝고 ‘과학’ 보다 ‘마법’을 더 사랑한다. 즉, 그것은 “만물에 스며있는 여성원칙”²⁶⁾으로서, “여성의 관능, 여성의 성적 에너지, 여성의 가장 소중한 생명력과 같은 것”, 다시 말해 “여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해주는 에너지”²⁷⁾를 말한다.

신경숙 소설에는 ‘생명 수액’이 우리의 폐미른 영혼과 육신을 적셔주는 역할을 한다. 고명철은 신경숙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세계의 불가해성에 의해 상처받은 존재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상처의 양상은 개별적인 것이야 어쩔든 하나의 점으로 수렴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바로 ‘부재, 텅 빈, 결락’이다.²⁸⁾ 나아가 상처받은 존재들의 ‘처연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현실의 지반 위에서 주체와 타자가 갈항하며 부딪치는 그 틈새에서 뿜어내는 ‘성찰적 아름다움’²⁹⁾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재, 텅 빈, 결락 등은 앞서 언급한 김화영과 이재복의 논문에서 지적한 ‘빈집’에 대한 의미와 상통한다.

이번 절에서 살펴 볼 「오래전 집을 떠날 때」,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는 걸까요」, 「우물을 들여다보다」, 「화분이 있는 마당」 등은 여성적 영성으로 빈 집을 채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작들이다. 먼저 살펴 볼 「오래전 집을 떠날 때」에는 두 개의 이야기의 영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인공 화자는 요리책을 만드는 월간지의 프리랜서 사진기자이다. 그녀는 힘들게 결정된 페루 여행을 일행보다 하루 앞당겨 서울로 돌아온다. 그러나 빈 집은 그녀의 귀가를 완강히 거부하듯이 전원이 나가 있고, 현관문은 열리지 않는다. 간신히 들어간 집에서 먼저 양초를 찾아 불을 밝힌다. 그녀가 양초를 밝히는 과정은 하나의 제의처럼 여겨진다.

26)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택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작비평사, 2000, 29면.

27)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택수·이난아 옮김, 앞의 책, 30면.

28) 고명철, 앞의 논문, 270면.

29) 고명철, 앞의 논문, 272면.

생태학에서 ‘영성’의 강조는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재발견으로, 인간이 모든 생명체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존중할 때에 지구상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질은 내세의 신이나 초월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우리의 노동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우리의 내재성에 있다. 그리고 때로 체제의식으로, 춤과 노래로 이 신성함을 찬양³⁰⁾해야 한다.

체제의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행동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주인공 화자가 불을 밝혀려고 가져온 양초는 그녀의 어머니의 정성³¹⁾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미 체의식을 마친 양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초불을 켜는 주인공 화자의 행동은 남매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

힘들게 밝힌 집에서 그녀는 두 영혼을 만난다. 화자는 남매를 볼 수 있지만 남매에게는 화자가 보이지 않는다. 남매는 보름 동안 있었던 그녀의 집을 말끔하게 수리해 주고, 생명을 깃들게 한다. 이 남매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홍수에 집 채로 떠나려던 영혼들이다.

그녀는 혼자 남은 여자에게를 뒤따라갔다.(중략) 그녀가 곁이 나서 아예 열어보지도 못한 냉동실 문을 잡아당겼다. 여자에게는 태연한데 그녀는 코를 싸쥐고는 여자에게로부터 성큼 서너 발짝을 떨어져나왔다. 그럴 줄은 알았지만 생선 썩는 냄새는 너무나 지독해서 가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냉동실에 아예 남포등을 깊이 밀어 넣고 한참을 서 있다. 곧 냉동실에 찬기가 들고 성애가 흘러다녔다. 축축해진 땅콩들이 알맞게 메말라갔고, 얼음통에 조각얼음이 조각조각 담겨진다. 생선이 녹고 썩으면서 흘러내린 물들이 나팔너벨 사라졌다. 그녀는 무슨 마술을 보고 있는 것만 같다. (「오래전 집을 떠날 때」, 152면.)

30)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비, 손덕수·이난아 옮김, 앞의 책, 29면.

31) 이 작품에는 체의식을 느끼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그녀의 모친은 그녀의 생일 무렵이 되면 성당에서 둥근 양초를 구해서 올려보내곤 했다. 생일날 아침에 그녀 방에 불을 밝혀두라, 했다. 그 불빛이 그녀의 앞날을 밝혀주리라는 것이 모친의 말이다. 밝은 데로만 가라고 기도한다고 했다.”(신경숙, 「오래전 집을 떠날 때」, 『감자먹는 사람들』, 창비, 2005, 132면.)

「오래전 집을 떠날 때」의 빈집의 형상은 자물통이 채워 있고, 푸른 방에 잡초가 가득하다. 신경숙 소설에서의 빈집은 화자의 내면 공간에 생긴 텅 빈 공간을 상징한다. 또 자신이 떠나온 자리, 고향에서 자기의 빈 자리만큼 생긴 텅 빈 장소를 상징하기도 한다. 빈집은 폐허를, 떠나온 테생지를, 유사한 텅 빈 자궁을, 무를 상징하며 궁극적으로 죽음을 상징한다.³²⁾ 그런데 이러한 텅 빈 집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적 존재들의 ‘생명 불어넣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주제는 2011년에 발간한 여섯 번째 소설집 『모르는 여인들』³³⁾에 수록된 「화분이 있는 마당」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주인공 ‘나’는 오래된 남자친구로부터 결별의 편지를 받은 이후 언어장애와 거식증에 걸린다. 지인들에게 이를 숨긴 ‘나’는 자신의 동네로 이사 온 후배의 ‘마당’있는 집을 우연히 들보면서 언어장애와 거식증이라는 ‘단절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환상적 체험 때문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환상적 체험은 「오래전 집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귀신을 영접한 체험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 태생지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마당이라는 공간과 화분에서 쉽게 연상할 수 있듯이 ‘흙’과 생명이 이 작품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나’의 후배는 서울에서 만나기 어려운 ‘마당’에 매료되어 낡은 집을 구하였다. 처음 집을 소개받았을 때 넓은 마당에는 많은 화분들이 깨어 있거나 널려 있었다. 후배는 마당을 손질하고, 화분을 정성들여 기꾸었다. 긴 출장 때문에 후배는 애정을 쏟은 마당을 ‘나’에게 부탁하고 떠난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한 그 집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의 정성어린 음식 대접을 받으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장애와 거식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놀라운

32) 박정호, 「육망의 서사 연구-김승옥, 신경숙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2008, 140-148면 참조.

33) 『모르는 여인들』에는 7편의 단편이 수록되었다. 이 작품들은 발표연도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넓게 분포된 편이다. 2011년에 발간되었지만 「화분이 있는 마당」은 2003년 『문학수첩』에 게재된 것으로서 최근의 소설세계를 보여주기보다는 5번째 소설집인 『종소리』와 밀착되어 있다.

것은 ‘나’를 환대한 여인이 바로 귀신이란 점이다. 그녀는 이 집의 옛 주인으로서 마당을 아름답게 가꾼 인물이었다. 넓은 마당과 많은 화분을 꽃과 나무로 가꾼, 즉 생명을 일구어낸 안주인과 후배는 서로 공통점을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인 인물이 고립화되는 주인공을 살려낸 것이다.

「우물을 들여다보다」에서도 ‘빛나는’ 텃밭과 함께 세계의 불가해성에 의해 상처를 입은 영혼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의 화자는 번역가이다. 이사를 하게 되어 자신의 집으로 이사 오는 인물에게 편지를 남기는 내용이다. 그 편지에는 우물에서 나온 영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화자는 집 주변을 ‘달리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아기를 낳다가 죽은 언니를 잊기 위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인공 화자가 달리기 경로에서 결음을 멈춘 것은 텃밭과 우물 때문이다. 텃밭은 앞서 보았던 「부석사」의 여주인공처럼 신선한 생명을 간직한 장소로서 ‘빛나는’ 흙의 공간이다. 그러나 텃밭 근처에서 발견한 우물은 언니처럼 불쌍한 영혼이 나온 장소가 된다. 우물에서 나온 영혼이 그녀의 집에 등장하여도 주인공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신이 밤을 먹을 때는 꼭 들이서 함께 먹는 것처럼 발상을 차린다. 이 역시 영성에서 나타나는 제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사를 떠나게 된 화자는 새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낯선 영혼이 찾아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잘 대해주라는 내용이다.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는 걸까요」는 번역성 결핍 체질인 7개월 딸아이를 수두로 잃게 된 부부가 단절의 세계에서 소통의 세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의 첫 시작에서도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온다. 화자는 두 달 전 새벽에 일어난 일이 ‘사실이었는지 환영이 있는지’ 잘 분간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실인지 환영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2년 전에 죽은 딸아이의 영혼을 만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신경숙의 생태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나온다. 이 편지글의 수신인 소설가에게 그의 글쓰기에 대한 꿈의 한 대목을 상

기시키는 부분이다.

선생님의 글쓰기에 대한 꿈의 한 대목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들을 불러와 유연하게 본질에 닿게 하고 자연의 법칙에 잠기게 하고 싶은 꿈. 그렇게 해서 이 순간을 영원히 가둬놓고 싶은 실현 불가능한 꿈.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이시면 제 마음을 헤아려주시리라 여겨져요.³⁴⁾

소설가의 꿈이라고 밝힌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들을 불러와 유연하게 본질에 닿게 하고 자연의 법칙에 잠기게 하고 싶은 꿈’은 바로 각종 화자의 꿈이기도 하다. 이 말 속에서 특히 ‘자연의 법칙’은 바로 생태학적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

말을 잃은 이후, 아내는 전국의 산을 헤메면서 야생의 식물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행위의 내면에는 ‘자연’을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 달리 표현하면 ‘생명의 잉태’를 바라는 욕망이 내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은 딸아이의 영혼이 찾아 온 날이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끈적이는 봄을 기다리는 심리에서 잘 나타난다.

그날 밤 눈보라에 뿌리째 뽑힐 것 같이 휘어지던 모과나무에 반짝반짝 윤이 나기 시작합니다. 봄산을 수놓을 다년초 풀들이 지금쯤 눈 속에서 계곡물 소리를 듣고 있겠군요. 별깨덩굴이나 참꽃마리들이요. 예기불이나 회땃딸기가요.(11면.)

참척의 고통에 있었던 아내는 딸아이의 영혼을 만나게 된 날 예감처럼 세쌍들의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다. 참척의 슬픔을 견디는 방법은 부부더러도 각기 달랐다. 아내는 근 2년 동안 전국의 모든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슬픔을 달래고, 남편은 일상생활을 묵묵히 하면서 견디어 왔다. 그러한 남편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기가 그들을 떠난 그날 다시 ‘방문객’이 되어 부부에게 나타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34) 신경숙,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는 걸까요」, 『딸기밭』, 문학과지성사, 2000, 33-34면.

다. 각방을 쓰면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아기의 웅얼이 소리가 들리면서 한밤중에 잠을 깨고, 아내는 남편의 소리내어 우는 눈물을 보면서 마음을 연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다시 ‘눈보라를 뚫고 제게 왔던 방문객’이 구월이 되면 태어난다는 사실을 한때 교정을 보았던 소설가에게 편지로 보내는 것이다.

살펴본 작품들의 공통점은 빈 집과 같은 고독한 집을 영성으로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영성의 밑바탕에는 흙을 기반으로 한 생명의 싹틈과 돌봄이 자리한다.

이들 작품에 나오는 영적인 존재들은 모두 불가해한 세계의 힘에 의해 상처받은 존재들이다. 빈 집에서 홍수에 떠내려간 어린 남매의 영혼, 수두 때문에 부모 곁을 떠난 7개월 된 아기,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죽은 아내, 아기를 낳다가 죽은 언니 등. 모두 자신의 힘으로는 맞설 수 없는 불가해한 힘 앞에서 상처를 받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의 등장과 그러한 영혼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하는 인물들에 의해 소통의 미덕을 보여준다.

3. 문명의 침투와 단절의 세계

2장에서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을 통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확인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태생지의 ‘저쪽’에 해당 하는 타향이나 고향이더라도 문명의 이기가 침투하여 더 이상 고향의 원형적 이미지를 간직할 수 없는 변질된 고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향이 지닌 생산성의 낙원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인간들은 서로 단절된 세계로 향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대표적인 작품은 「베드민턴 치는 여자」³⁵⁾와 「달의 물」이다.

35) 「베드민턴 치는 여자」는 신경숙의 세 번째 소설집인 「풍금이 있던 자리」(1993)에 수록된 단편이다. 이 작품은 신경숙의 4번째 장편소설인 『바이올렛』(1999)의 모태가 되는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단편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를 살펴보는 데에 주력한다.

「베드민턴 치는 여자」의 여주인공은 화원에서 일하고 있다. 고향을 떠난 도시에서 ‘글쓰기’를 꿈꾸는 여주인공은 완전한 글쓰기를 하기 전에 오프스튜디오부터 하고자 하지만 이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그녀는 우연히 화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도시공간에서 만난 화원이라는 장소는 그녀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의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꽃집 주인은 도시 근교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 달에 한번씩 그 땅에서 뿌리를 키운 식물들을 트럭에 실어서 이 도시로 가져오곤 했는데, 그녀가 할 일 중의 하나는 그 뿌리들을 분에 심어주고 비료를 주며 땅에서처럼 분 속에서도 잘 자라게 해주는 일이었다. 그 일은 즐거웠다. 식물들의 초록빛은, 그녀에게서 이미 희미해진 꿈조각이나 실타래같은 영킨 기억들까지 일깨워주려는 양으로, 늘 푸르게 웃자라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뿌리를 분에 심어주고 돌아온 날 밤에 다시 화원으로 돌아가 불을 켜고 앉아 있는 날도 있었다.³⁶⁾

초록빛의 화초들은 그녀의 유년시절 행복했던 장소인 미나리 균락지와 그녀가 사랑했던 친구를 떠오르게 한다. 화원에서 평화로움을 느꼈던 주인공을 비극적으로 만든 것은 사진기자의 행동이다. 사진기자가 이 세훈은 주인공에게 사랑을 고백했으면서도 그녀를 쉽게 잊어버리고, 아예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이처럼 타자에게 거부당한, ‘알게 됨’을 거부당한 그녀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그녀가 힘껏 손톱으로 포클레인 몸체를 긁어본다. 포클레인은 긁혀지지 않는다. 그래도 계속 긁어대니, 그녀 손톱이 부서져 달아난다. 그녀가 이제 포클레인 아무 곳이나 몸으로 밀어보고 있다. 미는 게 아니라 부딪쳐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몇 발짝 떨어져서 힘껏 달려들어도 포클레인은 꿈쩍도 안한다.(중략) 정강이가 쇠붙이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났고, 기어가느라고 얼드린 몸을 땀 때는 포클레인 모서리에 그녀의 가슴살이 꽤 찢겨진다.(중략) 그녀는 후유, 숨을 몰아쉬며 그 흙 속

36) 신경숙, 「베드민턴 치는 여자」, 『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지성사, 1993, 164면. 이하의 인용문은 제목과 페이지수만 기재함.

에 두 발을 꼬옥 묻는다. 뭘까 안심이 된다는 표정이다. 지꾸만 떠올려 자신의 무릎을 묻고 허벅지를 묻고 엉덩이를 묻던 그녀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호오, 웃기까지 한다.(179면)

이 작품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비극성은 고향의 상실로 떠오르는 생태계의 파손, 녹색 이미지의 파멸화에 연결되어 있다.³⁷⁾ 일반적으로 고향의 땅, 들녘은 '고향'이면서도 근원적인 믿음의 '집'으로서 인물들의 총체적인 존재감과 정체성이 관련된 의미 있는 장소이다. 그러한 고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결국 주인공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다.

「배드민턴 치는 여자」의 주인공이 도시의 한 복판에 있는 '화원'에서 잠시 동안 맛본 낙원의 이미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마치 사진 기사가 사랑을 고백했으면서도 쉽게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일시적'인 장소였다. 또한 이 작품의 주인공에게는 신경숙 소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태생지와 밀착된 육친과의 친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소설의 배경은 도시 공간의 건조한 인간관계, 나아가 문명의 비정함을 보여주기 위한 주제의식과도 맞물려 있을 것이다.

생태의식을 통해 도시문명의 비정성을 다룬 작품으로 「달의 물」도 주목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주요 공간이 도시가 아니라 '고향'이다. 신경숙에게 고향은 마음의 안식처이고, 사랑하는 육친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 그려진 고향은 기존 작품들과 사뭇 다르다. 등장하는 인물들인 아버지, 어머니, 오빠 등의 묘사는 기존 작품과 동일한데 '장소'로서의 고향이 달라졌다. 그곳은 유년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존재하는 낙원 이미지의 고향이 아니라 도시문명, 또는 '시멘트'라는 근대성이 침투된 장소로 변질되었다. 즉, 문명의 반향이 스며든 장소로 변질된 곳이다.

도시문명의 침투는 마당의 우물이 시멘트로 메워진 것, 마루가 있던 옛 집은 거실이 있는 현대식 양옥으로 바뀐 것, 개울물이 흐르던 동네가 북개천으로 바뀐 것 등에서 잘 드러난다. 문명의 침투로 인한 고향

37) 송지현, 「여성소설로서의 신경숙 소설 읽기」,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2000, 283면.

의 변모는 주인공을 낯선 '방문자'처럼 만든다.

「달의 물」에서 서술자인 '나'는 셀러리맨 약사이다.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약국은 병원의 농간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녀는 친구와 약국을 동업하기 위해 부모님께 자금을 부탁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때 어머니의 전화는 그녀를 고향으로 가게 한다. 지병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아버지가 술을 마신다고 진화를 했기 때문이다.

귀향한 순간 '나'는 도시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는 잊은 채, 황폐하게 변한 고향의 모습에 놀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의 생명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녀가 둘러본 고향집의 변모, 마을길의 변모는 모두 물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즉 우물과 도랑이 시멘트로 뒤덮인 모습, 바짝 말라버린 내소사의 연못, 간척사업으로 인해 독으로 둘러싸여 막혀 있는 바다의 모습 등은 생명성을 상실하고 있다. 막히고 갇힌 물, 매마른 물, 고인 물이 지니는 죽음의 이미지가 생명력의 고갈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갇힌 물은 작중인물들의 갈등을 끊임없이 유발시키는데, 특히 오빠가 맡기고 간 여섯 살배기 조카 동이가 대표적이다.

고향 집에서 만난 동이는 마당에서도 물을 요구하였고, 외식을 하러 갔을 때, 절과 약수터를 방문했을 때도 계속 물을 찾았다.

여간해서 연못의 물이 마를 리가 없으련만 연못의 물도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물! 물! 보체는 동이를 데리고 나는 절을 한 바퀴 더 돌았다...나는 근처의 가게에 들어가 작은 생수를 한 병 사서 뚜껑을 열 어 동이에게 건넸다. 어지간히 목이 말랐는지 동이는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생수 한 병을 거의 다 마셨다. (「달의 물」, 160-161면)

동이가 끊임없이 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작품 곳곳에 편제되어 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동이의 갈등이 이러한 원인은 샘솟는 물과 흐르는 도랑물·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상실에서 야기되었다. 메마른 공간이 불러오는 갈등은 가장 '어린 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다. 조카의 갈등은 '부적절한 곳'에 있는 '아픈 몸'의 징후(후88)가 된다. 즉, 물이 말라버린 고향은 부적절한 장소라는 뜻이며, 이

곳에서 끊임없이 물을 찾은 동이의 행위는 생명의 성장을 표상하는 아
이의 몸이 비정상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제
시되는 동이의 ‘물’ 마시는 행위는 드디어 서술자에게 변해버린 고향 공
간의 ‘재생’ 욕망을 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아버지, 저기 우물 말이에요

그거 다시 옛날처럼 해놓으면 안 될까?”

해야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내 입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
왔다.

“어쨌거나 물이 활랑찰라 있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매워놓고 시멘트로 발라놓으니 어째 내가 숨을 못 쉬겠어, 아버
지.”(「달의 물」, 185면)

물은 맑고 순수하며,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모성성을 지닌다.
또한 이 물의 흐름은 인간의 근원적 정신세계로의 회귀를 상징한다.
‘나’는 물이 자연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재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는 믿음을 갖고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무의식중에 표출된 ‘나’의 발언은 물의 생명력·재생력을 회복시켜
황폐화된 고향에 부여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하늘과
대지를 잇는 우물의 상징적 의미와 우물물의 ‘샘솟음’이 지니고 있는 생
명성의 복구만이 불과 대지 그리고 불과 공기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
로의 재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³⁸⁾

「달의 물」은 그간의 신경속 작품에서 그려진 고향과는 사뭇 다르
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부모님과 오빠의 인물 설정은 그의 자전적 체
험이 바탕이 된 고향 서사와 동일하지만 주요 배경인 고향은 낙원으로
서의 고향과 달리 그려지고 있다. 정다운 고향집 자체가 변한 것 외에
도 고향의 변모는 심각하다. 읍내에서 휘황한 불빛을 밝히며 등장한 모
텔과 읍내 아파트는 고향마을이 근대성에 의해 침식당한 공간이라는 것

38)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 2010, 115면.

39) 백윤경, 위의 논문, 270면.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품은 고향 안에 침투된 문명적인 요소들이
고향의 생명력을 고갈시킨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맺음말

90년대 소설의 특성과 그 흐름을 논하는 글⁴⁰⁾을 보면 ‘생태소설’을
주목한 점이 나타난다. 생태소설에서 강세를 띤 여성문화의 내재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성문학은 여성 특유의 문화, 그것 속에서 길러진
감성과 의식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여
성 문화 속에 잠재된 문학적 창조성이 무엇인가⁴¹⁾를 천착하고 있다. 따
라서 여성문학과 생태학의 접목은 다양한 문학적 형상화에 새로운 의미
를 부여하거나, 더 탄탄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준거가 될 것이다. 이
러한 가능태를 신경속의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생태학적 문학 연구는 해석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⁴²⁾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작품이 다루고 있는 소재보다는 그에 내재해 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의 의미는 본래부터 텍스
트에 내장되어 있다기보다 텍스트가 독자와 만나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 신경속의 단편소설
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의 양상과 소설세계를 살펴보았다.

신경속 단편소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의 양상과 소설세계의 특성은
먼저 ‘태생지와의 밀접한 관계를 들 수 있다. 生母가 세상에 단 한명이
듯, 胎生地도 단독성을 띠는 장소이다. 태생지는 대체가능한 장소가 없

40) 황국명, 「90년대 소설론, 그 치욕과 영광」, 『삶의 진실과 소설의 방
범』, 문학동네, 2001. 312면. 90년대 소설은 내성적 신변소설, 환상소설, 페
미니즘 소설, 기행 소설, 생태환경 소설, 구연적 소설, 사이버 소설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41) 황중연, 「여성소설과 전설의 우물」,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42) 이승준,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학적 쟁점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7
집, 101면.

는 고정불변의 장소라는 의미가 강하다. 때문에 타향에서도 정들어 살면 ‘고향’이 될 수 있다는 정서와는 거리가 먼 단어이다. ‘태생지’라는 언어 속에서는 어머니와 딸들로 이어진 내 몸의 관계, 나아가 그러한 딸들이 문헌 평과의 관계를 생성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서술자 또는 작가가 맺고 있는 육친, 땅과의 관계를 더욱 밀착되고 영속적으로 만들며, 때로는 신화적으로 상승시킨다. 또한 이 말 속에는 ‘도회지’에 대한 강력한 차별성이 스며있다.

신경숙에게 태생지는 ‘정읍’이라는 구체화된 지명으로 등장하거나 J읍, J시로 표현된다. 이니셜로 표기하는, 고유명사로 표기하는 중요한 것은 태생지가 농촌, 흙, 토지로 집중된다는 점이다. 물론 바닷가나 호수를 토포필리아로 설정한 작품도 있으나 대부분은 농촌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의 정서와 닿아 있다. 그의 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은 흙을 기반으로 한 농촌을 태생지로 설정하면서 대지와 생명체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식, 더 나아가 이를 초월한 들봄의 관계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모성성의 확대, 생명의 존엄성, 영성, 육친적 친밀성 등을 표출하면서 소통의 세계를 지향한다. 반면, 고향의 원형성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생태학적 상상력이 도시 문명의 비정성을 드러내며 관계의 단절성을 보여주는 데 기여한다.

자연과 여성이 보유한 공유점의 토대는 ‘생산성’이다. 신경숙은 특히 여성문학의 고유한 분야인 ‘어머니 되기’에 집중하여 ‘생산’, ‘들봄’의 행위를 부각시켰다. 기존의 모성성이 자신이 낳은 자식을 ‘들봄’으로써 혈연, 기문의 이테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면, 신경숙의 생태의식이 반영된 작품은 이러한 들봄의 태도와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어머니 되기’와 들봄은 육친과의 관계에서 더 확장된 것이다. 일양자와 어머니, 부부간, 제부와 처형 등의 관계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생명체까지도 해당된다. 그의 작품이 ‘어머니 되기’와 ‘생명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내용일 때 ‘동물(조류)의 세끼 날기’ 서사가 병행되는 것도 이런 이유와 닿아 있는 것이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과 들봄의 대상이 혈육으로 맺어진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 인간, 더 나아가 식물, 동물 등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범주로 확대되는 것을 보

여준다.

신경숙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살기’라고 하겠다. 이는 생명이 있는 것에서부터 생명이 없는 것까지 아우르며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의 소설에는 고독한 인간에게 따뜻한 밥을 해 먹이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며, 길 위에서 떠도는 고독한 인간을 비롯하여 개와 고양이까지 거두어 들이고, 보살피는 행위를 보여준다. 그의 생태적 사유는 이를 위해 태생지의 체험에서 비롯한 감각들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있다. 바로 여성적 원리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태생지와 먼 도시 공간, 또는 태생지의 급격한 근대화로의 변화는 관계의 단절로 치달으며 고독한 개인의 삶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신경숙, 『겨울우화』, 고려원, 1990.
 —, 『물이 될 때까지』, 문학동네, 1998.
 —, 『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 지성사, 1993.
 —, 『오래된 집을 떠날 때』, 1996.
 —, 『감자먹는 사람들』, 창비, 2005.
 —, 『딸기밭』, 문학과지성사, 2000.
 —, 『종소리』, 문학동네, 2003.
 —, 『모르는 여인들』, 문학동네, 2011.
2. 2차 자료
 곽경숙, 『1990년대 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1집, 2007. 8.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곽명철, 『문학적 지성의 빈곤, 아우라에 도취된 소설의 현주소』, 『쓰디의 정치학』, 세움, 2001.
 김옥동,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김화영, 『태생지에서 빈 집으로 가는 흰 새』, 『문학동네』 1998년 봄호.
 류보선, 『모성의 지위와 탈남만화』, 『종소리』 해설, 문학동네, 2003.
 백윤경, 『신경숙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물의 재구성』, 『문예시학』, 2009.
 송지현, 『여성소설로서의 신경숙 소설 읽기』,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2000.
 이재복, 『신경숙 소설의 미학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21집, 2002.
 이소영 외 편역, 『자연, 여성, 환경-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2000.
 이승준,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학적 쟁점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7집.
 이주미,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자기파멸의 심리적 메커니즘-마이올렛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009.
 장정렬, 『생태주의 시학』, 한국문화사, 2000.
- 황국명, 『90년대 소설론, 그 치유과 영광』, 『삶의 진실과 소설의 방법』, 문학동네, 2001.
 황종연, 『여성소설과 전설의 우물』,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마리야 미스·반다나 시버,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2000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애드워드 켈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Ecological Thinking and Writing in Short Stories by Shin Gyeong-Suk

Kim, Mi-Young
(Hanyang University)

On the idea that the ecological consciousness found in the short stories by Shin Gyeong-suk works to expand the horizon of interpreting her novel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aspects of "ecological consciousness" in her writing. The ecological consciousness in her novels demands attention in that it is closely related to one's native place. She clearly prefers "native place" to "hometown" in sentences the two are interchangeable. The word gives some hints about the ecological consciousness in her novels.

A native place is a place of independence, as well. It also has a strong significance that no other places can replace it. In the word of "native place," the author describes the relationships of my body to the mother through the umbilical cord and its relationships to the land where the umbilical cord is buried in a vivid and direct fashion. Thus the narrator or the author makes her relationships with her blood relatives and land closer and more eternal, sometimes raising them to the level of myth.

When choosing "native place" over hometown, one creates an affection for the fixed place. The aspects of ecological consciousness in her novels express becoming a mother, dignity of life, spirituality, and physical intimacy and pursue the world of communication. Her works

always go side by side with "hatching of the bird(animal)" when the topic is "becoming a mother" or "dignity of life." Thus the objects of dignity and caring of life expand to include all things that have "life" including plants and animals beyond one's flesh and blood, children of others, and people. On the other hand, when the hometown loses its image as a paradise due to the influences of city civilization, ecological imagination contributes to the demonstration of severed relationships while showing the heartlessness of city civilization.

* key words : Shin Gyeong-suk, ecological thinking, ecological consciousness, birth-land, communication, maternity, respect of life, spirituality, intimacy, heartless, severance

*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0일에 투고되어 2011년 12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1년 12월 7일 편집위원회를 통해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다.